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보도자료</b> 2025. 12. 29(월)	 <b>한국대학교육협의회</b>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 href="http://www.kcue.or.kr">http://www.kcue.or.kr</a>
--------------------------------	--

☎ 02-6919-3901, 3909 고등교육연구소장 : 강낙원/ 정책연구팀장 : 황정원 / 담당 : 오예진 선임연구원

## 대교협,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은 “개별대학 차원을 넘어 국가 청년정책으로 지원” 해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고, 대학 구성원 전체에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학 구성원 정신건강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였다.
- 이번 연구를 수행한 윤명숙 교수(전북대학교) 연구팀은 전국 4년제 대학의 대학생·직원·교수 등 1,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정신건강 실태와 지원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대학 구성원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대학생은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증 등 관련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들은 우울, 외로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과도한 학업 부담, 진로 고민, 사회적 관계의 약화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또한,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고립감이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함
  - 교수 및 교직원들은 지속적인 감정노동과 수직적인 조직 문화로 인한 만성적 스트레스, 정서적 소진 위험이 높게 나타남.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거나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견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문제가 조기에 포착되지 못한 채 은폐·지연되면서 위기가 누적될 가능성이 큼

-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달리, 대학 내 상담 체계가 구성원의 생활·업무 구조와 충분히 맞물리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서비스 단절’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 대학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정례화, 상담인력의 고용 안정성, 전문상담인력의 배치기준 마련,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여 개별대학 수준을 넘어 국가차원에서 청년 정신건강 정책과 연계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대학 학생상담센터의 확대 개편, 야간·주말 운영 확대, 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 확대, 대학생의 마음 건강문제도 출석인정에 반영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 병행과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한 다언어 전문상담사 확충 필요성도 강조함

□ 대교협 이경희 사무총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대응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